

**단풍이 점차 물들어 가는 아름다운 계절, 2019년 가을**

**세상의 시간과 구별하여 이 시간, 이 곳 예배의 자리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의 표현으로 드리는 묵상과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현재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민들까지 서로 분열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국민들은 서로가 이해하고 화합하는 지혜로움으로 통해,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고 거듭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 세습과 동성애 확산 등 수 많은 죄악과 난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행동할 때와 멈출 때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로 간구하면서, 선으로 이기게 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 삶을 거두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곳 송실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겸손히 행하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송실의 구성원들의 모습과 행동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비록 세상 일하는 모습과 서로 가는 길이 다를지라도,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더욱 Plug-in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송실 공동체가 되도록 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하는 동안 세상의 부요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체의 약함을 타하기보다는, 하늘의 가치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일을 향한,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영적 자부심을 추구하며,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길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영혼이 부요한 하나님의 굳건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들의 우둔한 언행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실천의 아름다운 결실이 나타나게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예배를 돕는 교목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어,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고요한 예배의 향기가 우리 마음속에 퍼져, 다시금 올바른 신앙의 삶을 다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10월 2일(수) 12시 수요일예배)